

아쉬워라! 연변팀, 상해탄서 0 대 0 무승부

— 1 점도 소중… 원정서 승점 벌이에 성공



5월 4일 저녁 7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상해가정경기장에서 펼쳐진 상해가정화룡팀(이하 '상해팀')과의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7라운드 경기에서 0 대 0 무승부를 기록하며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추가했다.

이날 상해팀은 예상한 대로 13번 리학박을 문지기로 내세우고 3번 요분, 14번 류수, 30번 류양으로 수비선을 구축했으며 12번 두장걸, 37번 유호정, 2번 기신뢰, 20번 오의진으로 중원을 두텁게 칸 후 10번 아모, 19번 류후우, 22번 마그노를 공격선에 배치한 3-4-3 공격형 진형을 들고 나왔다.

이에 연변팀은 10번 포부스와 30번 황진비를 공격선에 두고 14번 리룡, 16번 허문광, 5번 도밍고스와 20번 김태연으로 중원을 구성했으며 33번 호재겸, 15번 서계조, 3번 왕봉, 17번 박세호로 수비선을 짰 4-4-2 수비형 진형으로 맞섰다. 끝문은 몇경기째 발휘가 안정적인 구가호에게 맡겼다.

한편 이날 경기에 장저후축구팬클럽의 1,200여명 연변축구팬들이 현장

을 찾아“장저후도 당신의 홈장입니다!”라는 대형 프랑카드를 걸고 홈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연변팀 또한 ‘객반위주(客反为主)’를 포스트로 내걸고 홈장같은 경기를 주눅했다.

상해팀은 연변팀을 기선제압할 태세로 시작부터 진영을 밀고 들어왔는데 경기 시작 20초 만에 마그노가 연변팀 금지구역 안에 파고 들어왔고 3분경에 첫 코너킥을 얻었다. 그러나 연변팀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기회를 노렸고 4분경에는 반격 기회를 얻어 상대를 자기 진영으로 밀어가기도 하였다.

경기 10분경, 연변팀은 왼쪽 측면으로 밀고 들어간 공을 금지구역 안까지 끌고 가 비교적 좋은 기회를 얻었으나 밀집수비에 막혔다. 연변팀이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아가는 듯하였고 반면 상해팀도 공을 잡으면 공격에 돌입해 수비선과 공격선 배합으로 중원을 생략한 경기는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17분경, 황진비가 반칙으로 이번 경기 첫 옐로카드를 받았다.

경기 20분경부터 연변팀의 공세에 밀린 상해팀은 병력을 자기 진영으로

물리고 선수비 후역습에 들어갔고 연변팀은 비교적 원활한 패스와 배합으로 수차 상대의 금지구역으로 파고들었으나 마지막 기회는 차레지지 않았다. 점차 중원 정찰이 치열해졌고 24분경 포부스의 슈팅이 골문 밖으로 흘러갔다.

31분경, 포부스와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해팀의 기신뢰가 고통을 호소하며 들것에 들려나갔다. 34분경, 연변팀은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고 상대의 금지구역 안에서 도밍고스가 슈팅 기회를 얻었으나 상대의 수비수가 걷어냈다.

35분경부터 연변팀은 공격선을 상대의 진영으로 밀고 들어가 상대의 수비선을 압박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끝문을 열지는 못했다. 경기 추가 시간 3분이 다 지날 때까지 경기는 0 대 0으로 고정되었다.

전반전에 연변팀은 공 점유율은 비슷하였으나 슈팅이 4-0, 코너킥이 2-1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경기 후반전에 접어들어 상해팀에서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신뢰와 두장걸을 내리고 왕호연과 황명을 올렸다. 연변팀은 조정이 없었다.

48분경, 연변팀 수비선을 뚫고 들어온 상해팀이 연변팀 금지구역 안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으나 수비에 막혀나갔다. 연변팀도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전개가 너무 간단하여 상대의 수비선을 뚫지 못했다. 54분경에도 코너킥 기회를 벌여 상대 금지구역 안에서 혼전을 벌였지만 상대의 밀집수비에 막혔다.

경기 55분경, 상해팀에서 전면 공격을 구사하면서 아모, 마그노를 비롯한 용병들을 중심으로 연변팀을 압도해왔다. 구가호가 좌측우돌로 공격을 막아냈다. 57분경, 포부스가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지만 막혀 나갔고 다시 얻어낸 코너킥도 골문 밖으로 흘러갔다. 앞으로 뛰어다니는 상대 용병 마그노의 체력 소모가 컸는데 이는 연변팀에 있어 좋은 소식이었다.

62분경, 상해팀의 9번 류후우가 팔꿈치 반칙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다. 65분경, 연변팀은 짧고 빠른 패스로 금지구역 안 황진비를 위해 기회를 창출했고 이는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두 팀의 밀고 당기기 치열한 가운데 심판의 판정이 수차 선수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71분경, 상해팀은 유보정을 내리고 주보걸을 올렸다. 74분경, 연변팀은 11번 음바를 올리고 황진비를 내렸다. 81분경, 상해팀은 용병 마그노를 내리고 소시호를 올렸다. 86분경, 연변팀은 체력이 떨어진 김태연을 내리고 리세빈을 올려 공격을 강화했다.

쌍방은 빈번한 선수 교체로 변화를 가져오면서 득점을 꾀하였다. 89분경, 도밍고스가 슈팅을 날렸으나 골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후반전 경기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진 가운데 쌍방은 사력을 다했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3장의 옐로카드가 난무하는 등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경기 성적은 여전히 0 대 0으로 굳어졌다.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1점 벌이에 만족해야 했던 연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4일 당일 진행된 경기에서 1 대 2로 료녕철인에 패한 섬서련합을 홈장에 불러들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 김태극 김파 기자

연변, 우리의 청춘이었다!



2025년 5월 4일, 봄이 완연한 듯하면서도 밤바람은 쌀쌀했던 상해가정경기장 경기장.

이날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날이었다. 연변팀의 2025 시즌을 통털어 장저후지역에서 펼쳐지는 네 경기중 첫 경기날이었고 우리들의 청춘을 기리는 '5.4' 청년절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장저후연변축구팬클럽'이 설립된 지 꼭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모든 경기가 우리에게겐 특별했다.

1,200여명의 연변축구팬들이 상해가정경기장으로 모여들었다. 그 누구한테 떠밀려서가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것임을 나는 보았다. 하나가 된 목소리로 고향팀을 응원하려고,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려고 달려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 한달전부터 땀 흘려 준비해왔다.

입장권 사전 신청, 대형 버스 2대 임대, 그리고 유니폼 500벌과 응원수건 500장, 박수소리에 힘을 실어줄 응원봉 1,000개를 사전 제작하여 이날 현장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며 응원에 열기를 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을 위해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것이 있었다. 바로 "10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라는 문구의 128평방미터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이다.

이 거대한 TIFO가 밤바람에 펄럭이는 순간, 누구라 할 것 없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문구 속에 담긴 10년의 시간에는 우리의 청춘, 희망, 때론 쓰라린 패배마저 함께한 기억들이 온전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2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를 웨쳤을 때가 바로 잊고자 같은데 벌써 10년이러니... 연변 축구는 나의 청춘이고 모두의 젊음이었다. 붉은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를 떠창하며 잠시 고향을 그리운다.

그리고 이 밤의 감동을 더해준 특별한 장면이 또 있었다. 한 팬분이 소주에서부터 경기장까지 간 밤을 새워 손수 빛은 얼굴만한 크기의 고기만두 120개를 들고 왔던 것이다. 따뜻함이 오래가도록

보온가방 4개에 가득 담아서 말이다. 그리고 그걸 중간 휴식시간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주로 수많은 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따뜻한 한입에 허기를 달랠기에 후반전엔 더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가 있었다.

이분은 매년 장저후지역에서 펼쳐지는 4번의 경기에 호떡 80개를 구워오기도 했고 고기만두 200개에 김밥도 50줄씩 손수만 들어오기도 했다. 항상 고마운 천사같은 분이시다.

누구는 "그 만두 덕에 후반전에 더 힘났어요."라며 웃었고 누구는 크게 한입 들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변정'이지요."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이날의 응원은 유독 힘이 있었다.

"승리하자 연변!"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힘을 내라 연변!"

"우리 연변 승리하자! 랄랄라 라라라라 랄라."

응원 구호와 노래에는 우리의 뿌리,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사랑이 모두 담겨있었다.

비록 경기는 0 대 0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날의 열정은 결코 무승부가 아니었다. 홈팀에 비해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혈투로 밀어붙였다.

나의 마음속에 연변도 이겼고 팬들도 이겼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확인한 날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경기 끝난 뒤엔 누구라 할 것 없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는 깔끔하게 치우고 간다. 이전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마음이다.

따뜻한 팬들 하나하나의 손길 속에, 쓸쓸하지 않은 타향의 밤공기 속에,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평생입니다."라는 약속 속에 연변축구의 래일이 담겨있었다.

10년을 함께한 우리 장저후팬들이여! 앞으로의 1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평생을 우리 연변축구와 함께합시다.

잊지 못할 2025년 5월 4일을 기록하면서... 그날 밤의 1/1,200 팬으로부터...

/ 장저후연변축구팬클럽 8번 박미라



감독초대석

“문전에서 더 많은 기회 만들지 못해, 돌아가 보완해야”

5월 4일 저녁 7시에 상해가정경기장에서 펼쳐진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은 상해가정화룡팀과 0 대 0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후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아주 간고한 경기였다.”고 말문을 떼고 나서

“그러나 선수들이 경기전에 포지션대로 수비와 공격을 잘해주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경기에 대한 생각을 터놓았다. 그는 “문전에서 더 많은 찬스와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겠다.”고도 표했다.

1,200명이 넘는 장저후축구팬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홈장을 방불케 한 상해 원정에서 소중한 1점을 추가한 연변팀은 5월 11일에 다시 '마귀홈장'으로 돌아와 섬서련합과 홈 맞대결을 치른다.

/ 김가혜기자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공식계정

[포토 포커스]

“장저후도 당신의 홈장입니다!”



중국 최초! 아시아 최초!
조심동, 스누커 세계 챔피언 등극



북경시간으로 5월 6일,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2025 스누커 세계선수권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 조심동이 웨일스 출신 베테랑 마크 윌리엄스를 총점수 18 대 1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조심동은 중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의 스누커 세계선수권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스누커운동의 역사를 창조했다.

/ 중앙방송